돈 더 쓰려고 수익 부풀린 맨시티, 2시즌 챔스리그 퇴출·384억 벌금 중징계 후폭풍

EPL도 승점 삭감 움직임…맨시티 풍비박산?

1 후원 수익 부풀린 구단주 만수르 재정 건전성 훼손
2 UEFA 중징계 이어 EPL도 승점 삭감 가능성 대두
3 최악의 경우 4부 강등땐 유럽 최고 클럽 공중분해
4 과르디올라 감독·주요 선수들의 팀 이탈도 불가피

유럽축구연맹(UEFA)이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을 이유로 맨체스터 시티에 향후 두 시즌 동안 UEFA 주관 대회 출전 불허를 15일(한국시간) 통보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비롯한 맨체스터 시티 주축들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맨유와의 라이벌전에서 선수들을 지휘하고 있는 과르디올라 감독. 맨체스터(영국) | AP뉴시스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으로 향후 두 시즌 동안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무대를 밟지 못하게 된 가운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UEFA는 15일(한국시간) "클럽재정관리위원회(CFCB) 조사 결과 맨시티가 UEFA 클럽 라이센싱 및 FFP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UEFA는 2020~2021시즌과 2021~2022시즌 UCL과 유로파리그에 맨시티의 출전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UEFA는 맨시티에 벌금 3000만 유로(약 384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왕족인 셰이크 만수르가 구단주로 있는 맨시티는 엄청난 자금력을 앞세워 세계적인 선수들을 끌어 모아 강호로 급부상했다. 문제는 돈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점이다. 맨시티가 위반한 FFP는 유럽 구단들의 재정적인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다. 구단의 지출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맨시티는 더 많은 돈을 쓰기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후원 수익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UEFA 징계뿐 아니라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징계도 거론된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맨시티가 UEFA 징계로 프리미어리그 승점 삭감의 징계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UEFA에 제출한 정보가 잘못됐다면 EPL에 제출한 자료도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기에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징계 중엔 승점 삭감이 유력하다. 최악의 경우 리그2(4부 리그) 강등도 가능하다는 게 현지 언론의 전망이다. 이럴 경우 유럽 최고 수준의 팀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될 수도 있다.

감독과 선수의 이탈도 불가피하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비롯해 주전 선수들은 UCL에 못 나가게 된다면 팀에 남을 이유가 없게 된다. 감독을 포함한 주요 선수들의 이적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맨시티의 징계로 EPL 5위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EPL은 4위까지 UCL 출전권을 갖는데, 현재 2위인 맨시티가 징계를 받으면 차순위 클럽에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5위 다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우즈 한 홀서 4퍼트 리비에라 악연 재현

〈리비에라 골프장서 우승 제로〉

2000년 3R 때도 같은 홀서 4퍼트

우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총상금 930만 달러· 약 110억원)이 벌어지고 있는 리비에라 골프장은 타이거 우즈(미국)와 이런저런 인연이 깊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에 있는 리비에라 골프장(파71·7322야드)은 우즈가 어린 시절 자란 동네와 가깝다. 16세 때 아마추어 자격으로 처음 출전했던 PGA 대회가 열렸던 곳이다. 이번에도 타이거 우즈 재단이 대회 호스트로 참여하고 있다. PGA 투어 통산 82승을 거둔 우즈지만 이상하게도 리비에라 골프장에서는 성적이 좋지 못했다. 13번 출전했지만 아직 우승이 없다. 게다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은 우즈가 통산 10차례 이상 출전하고도 우승이 없는 2개의 대회 가운데 하나다. 또 다른 대회는 노던 트러스트 대회다.

우즈는 16일(한국시간) 3라운드에서 4퍼트를 했다. 파4 13번 홀에서 5.6m 거리를 남겨두고 주말골퍼처럼 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며 더블보기를 기록했다. 2온에 이은 버디퍼트가 빗나간 뒤 홀에 60cm 가까이 붙었지만 파 퍼트가 홀 컵을 스치며 직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갔다. 90cm로 더 멀어진 보기퍼트를 집어넣지 못한 우즈는 결국 4번의 퍼트로 홀 아웃했다. 김이 빠진 우즈는 파3 14번 홀에서도 보기를 하며 우승권에서 밀려났다. 홀당 평균 2.38개의 퍼트를 기록하며 5오버파 218타, 공동 63위. 2000년 3라운드 때도 이 곳 같은 홀에서 4퍼트를 했다는 기록도 있다.

김종건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20승 쏜 박인비 "남편은 내게 언제나 넘버원"

사회자의 남기협 코치 질문에 "이런 남편 가질 수 있어서 행운"

박인비(32·KB금융그룹)는 16일 ISPS 한다 호주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면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8번째 20승 선수가 됐다.

호주 여자오픈에서는 2013년 신지애~2017년 장하나~2018년 고진영에 이어 4번째 한국선수 우승이다. 그와 14년째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전담 캐디 브레드 비쳐와 체력담당 트레이너의 고향도 호주여서 이번 우승이 감격적이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박인비는 경기 뒤 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로 많은 이들에게 감사했다.

그는 "8년 만에 호주에 왔는데 경기가 아주 즐거웠다.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로열 애들레이드 골프클럽 코스가 아름다워서 마음에 들었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인터뷰 때 사회자가 가장 궁금해 했던 것은 남편이자 코치인 남기협 코치와의 관계였다. 직장인 골프장에서 서로 불편한 순간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였다. 박인비는 "이런 남편을 가질 수 있어서 행운이다. 나를 위해서 항상 배려해주는 코치이자 남편은 골프장에서나 다른 곳에서나 내게는 넘버 1이다"고 했다.

남 코치는 박인비가 우승을 확정한 뒤 스코어카드를 확인하기 위해 대회본부로 향할 때 다가와서 가볍게 하이파이브만 하고 사라졌다. 박인비가 우승을 차지하자 그린 주변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동갑친구 신지애와 최나연을 비롯해 유소연, 이정은6 등 많은 한국 선수들은 축하의 샴페인을 부었다. 신지애는 박인비에게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라고 권유했고 박인비는 마다하지 않았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 LPGA 통산 20승·박인비의 위대한 발자취

※ 1·5·7·9·11·15·16번째는 메이저 우승(통산 7승)

	우승 대회	년도	최종 성적	우승상금(달러)
1	US오픈	2008년	283타 9언더파	58만5000
2	에비앙 마스터스	2012년	271타 17언더파	48만7500
3	사임다비 LPGA 말레이시아	2012년	269타 15언더파	28만5000
4	혼다 LPGA 타일랜드	2013년	276타 12언더파	22만5000
5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2013년	273타 15언더파	30만
6	노스 텍사스 LPGA 숏 아웃	2013년	271타 13언더파	19만5000
7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	2013년	283타 5언더파	33만7500
8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2013년	201타 12언더파	30만
9	US오픈	2013년	280타 8언더파	58만5000
10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LPGA클래식	2014년	261타 23언더파	22만5000
11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	2014년	277타 11언더파	33만7500
12	푸본 LPGA 타이완 챔피언십	2014년	266타 22언더파	30만
13	HSBC 위민스 챔피언십	2015년	273타 15언더파	21만
14	발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노스 텍사스 숏 아웃	2015년	269타 15언더파	19만5000
15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2015년	273타 19언더파	52만5000
16	리코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	2015년	276타 12언더파	46만4817
17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2015년	270타 18언더파	20만
18	HSBC 위민스 챔피언십	2017년	269타 19언더파	22만5000
19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2018년	269타 19언더파	22만5000
20	ISPS 한다 호주 여자 오픈	2020년	278타 14언더파	19만5000

유명 배우 프로포폴 연루…연예계 떨고있나

연예기획사 대표·재벌가 인사 등 검찰, 10여명 대상 수사 진행 중

연예계에 프로포폴 스캔들이 또 다시 번질 조짐이다.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배우 A를 포함한 1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관련한 신고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대상으로 떠오른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10여 명 가운데 배우 A와 연예기획사 대표 B가 재벌가 인사들과 함께 포함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혹에 휘말린 배우 A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15일 채널A는 '뉴스A'를 통해 "배우 A와 기획사 대표 B는 배우 출신인 A의 친동생 이름을 차명으로 사용해 수년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해 같은 병원에서 혐의가 적발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역시 A의 동생 이름을 의료기록에 남기고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이 온갖 추측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연예계는 2013년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스캔들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이번 사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A와 재벌가 등 연결고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